

# 중증장애인 50명 가을산사 참배

### 신행 현장

### 광림사 '휠체어 타고 사찰나들이'

"가을 산사에 오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가을을 입은 자연의 아름다움도 보기 좋지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봉사자들 때문에 마음이 뿌듯합니다"

4살난 딸 효경이와 함께 광림사 지체장애인 성지순례 행사에 참가한 노명란씨(서울 강서구 등촌동). 노씨는 장애인의 불편함을 잊어버리고 팔과 함께 수타사 경내와 계곡을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노씨는 "절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이런 행사를 준비할 줄 몰랐다"며 "이제부터라도 사찰에 나가 부처님 곁에 안기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말했다.

터 부둥켜안고 차랑에 태워 데리고 왔다. 특히 불자 개인택시·모범택시기사 50여명은 이날 행사를 위해 하루 휴무를 반납까지 하며 차량봉사에도 나섰다.

「군자기」로 장애인 50여명의 택시는 중증 장애인을 태우고 흥천 수타사로 출발했다. 수타사 주차장에 도착한 일행들은 휠체어를 미는 자원봉사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티없는 웃음을 피웠다. 이날 하루 장애인들의 손과 발이 되고자 자원한 봉사자들은



○5일 광림사 지체장애인 사찰나들이 행사에 참가한 50여명의 지체 장애인들이 자원봉사자들의 안내로 수타사 경내를 둘러 산사의 형태를 알고있다.

문화 기사님들께 말도 꺼내지 못했는데 이렇게 도움주신 분들께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을 전한다"며 "모두 한마음으로 싱그러움의 향기를 맡자"고 법문했다.

법륜회 유승봉회장은 "저희 운전기사들의 수고는 장애인 여러분들의 불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더불어 사는 세상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며 "먼길을 어렵게 온만큼 장애인들이 사찰의 향내음을 마음껏 마시고 돌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광림사 주지 해성스님은 "경제가 어려워 법

식으로 이들의 마음뿐 아니라 몸도 푸짐해졌다. 해성스님은 "새벽부터 신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건강을 생각해 사찰에서 처음으로 돼지고기 80근을 구입 가져왔으니 맛있게 드시라"고 덧붙였다. 수타사(주지 임화)에서도 따뜻한 된장국과 싱싱한 과일도 제공했다.

여흥시간에는 한국장애인예술탄(단장 한복수)이 출연하여 분위기를 돋웠으며 장애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어우러진 즐거운 시간이 됐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la.com)

### 법륜회·TBS통신원

### 운전불자 1백명

### 새벽부터 자원봉사

말과 생각을 떠나 몸소 지체장애인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눴다. 3시간여 차를 타고 달려온 수타사 대웅전 앞마당. 일반인처럼 법당에 들어가 참배할 수는 없었지만 부처님을 향해 두 손을 모은 채 힘겹게 몸을 비틀며 연신 고개를 숙이는 지체 장애인들의 모습에서는 정성스런 불심이 묻어났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광림사 주지 해성스님은 "경제가 어려워 법

문은 한결같이 자연속의 고즈넉한 산사를 참배해 기도해 보는 것이 꿈이었다. 그 꿈이 부처님의 자비로 이루어진 것이다. 중증 지체장애인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에 힘입어 강원도 흥천 수타사로 함께 길을 올랐다.

이들의 나들이를 가능케 한 이들은 광림사 보현회 회원 50여명과 광림사 불자운전기사의 모임인 법륜회, 교통방송 동부통신원 50명 등 총 1백여명의 자원봉사자들. 이들은 장애인들이 광림사(주지 해성)가 실시하는 수타사 성지순례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이른 새벽부터 장애인들을 방 안에서부

### 주제가 있는 법문

## 한글 사랑으로 한민족 주체성 찾자



지정스님  
불광법회 회주

말과 글자는 마음 속에 생각을 표현하는 편리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구를 이용하여 인류의 역사를 창조해내고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말과 글자가 없다면 우리 세상은 흑암과 다름없는 삶이 되고 맙니다. 다행히 우리에게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있습니다.

한글은 554년에 이르는 동안 우리 생활문화의 터전이 되었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창조하고 성숙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한글 창제의 말과 문자가 다름에 따른 백성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함이 목적이었지만 불교적으로 보면 불교의 한글화를 통한 경전보급이 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어느 가난한 농부가 자식을 서울로 공부시켜 출세시켜 놓으니까 어느 날 서울까지 찾아온 늙은 부모의 초라한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친구에게 고향집의 모습이라고 소개하였다는 일화가 있듯이 우리는 한글을 너무 푸대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뿌리와 주체성도 없이 우리의 문화가 혼혈민족 같이 잡종사니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인만큼 문화적인 주체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별로 꼭 필요한 전문용어는 외국어로 발전시키고 일반적인 대중문화생활의 언어는 우리의 한글로 보급 발전시켜서 우리 민족의 확고한 개성을 살려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좋은 말이 있는 데도 구태여 외국어를 사용하는 풍조가 날로 확산되는 것은 일부 지식층을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행복의 자리가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개인적인 작은 이익에 개입하지 말라는 뜻일 것입니다. 마치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가 대한민국의 영광을 차지하는 대중적인 정신에서 싸워야지 개인의 영광만을 생각한다면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싫어하는 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 부처님을 부처님에게 끄 만들어놓은 것은 반야바라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은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까지 경전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역시 우리의 말과 한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의 어머니를 천대하고 있습니다. 마치

### 외국어 무분별 사용

### 우리말과 글 푸대접

### 세계화 절대 아니다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분별심에 얽매어서 자랑을 하다보면 성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인의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행복의 자리가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개인적인 작은 이익에 개입하지 말라는 뜻일 것입니다. 마치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가 대한민국의 영광을 차지하는 대중적인 정신에서 싸워야지 개인의 영광만을 생각한다면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싫어하는 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 부처님을 부처님에게 끄 만들어놓은 것은 반야바라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은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까지 경전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역시 우리의 말과 한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의 어머니를 천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좋은 말이 있는 데도 구태여 외국어를 사용하는 풍조가 날로 확산되는 것은 일부 지식층을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행복의 자리가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개인적인 작은 이익에 개입하지 말라는 뜻일 것입니다. 마치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가 대한민국의 영광을 차지하는 대중적인 정신에서 싸워야지 개인의 영광만을 생각한다면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싫어하는 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 생활속의 불교

### 낙원의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

우물 안 개구리가 본 하늘은 둥그랴다. 때로는 푸른 빛깔, 때로는 잿빛의 둥그랴다. 그래서 우리는 소견 좁은 사람을 일러 '우물 안 개구리'라 한다. 제 눈에 비춰진 세계만을 절대라고 고집하는 모습이 꼭 우물 안 개구리를 닮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실 우리 모두는 거의 예외없이 우물 안 개구리이다. 스스로는 한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일 없고, 나만은 아니라고 믿고 살지만, 알고 보면 누구나 우물 안 개구리이다. 왜냐? 누구나 다 관념의 통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우리를 대부분은 관념이라는 대롱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위대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도 "인간은 착각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다"고 말했다. 제아무리 세계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 해도, 관념이라는

대롱을 버리지 않는 한 사물의 실상에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인간의 세계 인식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요소는 많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배고픈 때와 배부른 때가 다르듯이 육체(육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고, 또 자신의 경험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사물을 대하는 태도는 관이하게 달라진다.

그 뿐이 아니다. 자신의 관심이나 다가오는 경계의 양상에 따라라도 앞뒤의 생각이 달라진다. 자신이 속한 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나 문화적 전통이나 관습도 나의 생각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어찌 내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진실이라고 강변하고 고집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사람들은 제 관념을 절대

적인 양 우겨대며 분쟁을 일으키고, 시비를 논한다.

선사들은 그런 모습을 일컬어 통 속에 갇혔다고 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삼독심(三毒心)이라 하셨다. 자신을 죽이고 남도 죽이는 독물이 바로 저마타의 어중잡은 관념이라 하신 것이다.

우물 안 개구리가 세계의 광활함을 모르듯이 관념의 감옥에 갇힌 사람은 자재로운 삶을 알 수 없다. 관념의 대롱으로 세상을 보는 한 그는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불법은 열린 마음을 가르친다. 우물 밖, 통 밖의 삶을 가르친다. 온산철벽 깨는 길을 가르친다. 노예가 아닌 자유인의 삶을 가르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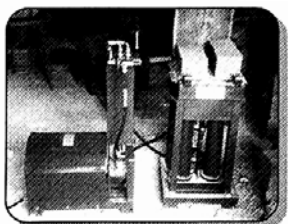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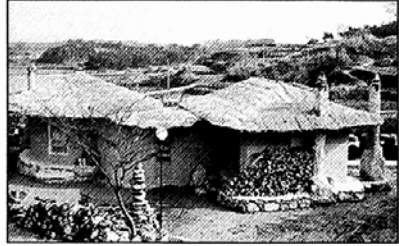
龍眼

##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 등록

###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작모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2-021769 송송향토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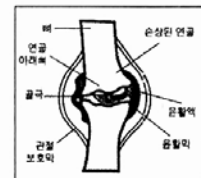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송송향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

##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물컹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해방될 수 있는 건강식품이 수인대 화제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 단백질과 마그네슘, 세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제'는 담가 없이는 물렁뼈가 생성되고 골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 IMF다이어트 인기급등

만민들의 희소식. 최근 삼일양행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을 공정도 가격으로 인하하였고 또한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킨 것이 바로 IMF 다이어트이다. 이 다이어트의 특징은 한방에서 추출된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몸을 흡수한다는 것.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섭취

퇴행성 류마티스성 통풍성 관절염 자연추출미생물 이온화 '코랄사르골드' 복용 1개월만에 확연한 회복만발

잡아주며 몸이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가 관매되고 있다. 코랄사르골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 환자에게 희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제'는 국내 삼일양행(02-790-8200)에서 독점 시판하고 있으며 부작용 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코랄사르골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더 희망을 주는 다이어트 트로 거들떠다녔다고 한다. 비만인들의 희소식은 불림없으며 한방성분의 10여가지 조화가 균형을 잡는 비법이라고 한다. 삼일양행측은 IMF 졸업할 때까지 현재가격을 고수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문의 :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 3개월 특별속성반 한국불교법사대학

# 불교의식(범음) 수련생 모집

본 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3기 불교의식(범음 법패)을 3개월 속성으로 수련하실 분을 특별 모집합니다.

- 수련과정 : 특별속성반 3개월 과정
- 교육방법 : ① 출강 ... 매주 수요일·금요일 오후 5시~7시(2시간) ② 통신 ... 교재 및 테이프, 기타 교육자료 우송
- 교육내용

- ① 송주편(도량식·조석종성 등)
- ② 예경편(상단예불·조석예불·각단예불·향수해례·사상례·신중단 등)
- ③ 헌공편(삼보통칭·중단피공·불공시식·관음·지장·신중청 등)
- ④ 재의식편(천도제·49제·시타림·기제사·명절제사·방생의식 등)
- ⑤ 시식편(관음시식·화엄시식·구병시식 등)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 접수마감 : 2000년 10월 12일까지(현재 접수중)
- 접수방법 : 전화 접수 후 서류 제출
- 개강일시 : 2000년 10월 13일 금요일 오후 5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불교법사대학**  
불교전통의식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Fax. (02) 737-5305  
http://pubsa.buddhism.org